



원청교섭

비긴즈

2026-
6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9.2.(수)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 금속노조

최태원 회장이 나서라 SK하이닉스 하청 노동자들 차별 중단 촉구

SK하이닉스 하청 노동자들이 9월 1일 오전 최태원 회장 집무실이 있는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 93조가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원하청 사이에 임금과 성과급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하청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차별중단과 원청교섭,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차별철폐를 위해 SK서린빌딩에 매주 찾아가는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한온시스템 진짜 사장 맞다” 교섭요구 공고하라 충남지노위 인정

충남지노위가 한온시스템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한온시스템 원청은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금속노조 한온시스템사내하청 3개 지회는 “지노위 결과는 3개 지회 공동투쟁의 성과”라며 “지회들이 똘똘 뭉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끝에 얻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3개 지회는 서로 갈라지지 않고, 공동의 요구와 힘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숨지 말고 현대차 나와 중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8월 31일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사건에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원청이 사용자로서 비정규직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즉각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원청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노위는 현대차 원청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리점 노동자는 이번 판결에서 배제했다. 노조는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은 원청 통제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왔다”며 “진실은 중노위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3개 지회 굳건한 연대로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쟁취하자!



전진우 대전충북지부
한온시스템대전사내하청지회장

3지회 첫 공동 투쟁, 충남지노위 판결 승리를 이끈다

한온시스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전과 울산으로 나뉘어 일하고 있습니다. 대전지회는 출하(지계차)를, 울산지회는 생산을, 사출지회는 사출 업무를 담당하며 서로 작업환경과 업무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온시스템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이번 원청교섭 투쟁을 준비하며 우리 3개 지회는 처음으로 공동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결된 힘은 곧바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27일, 충남지방법노동위원회는 우리가 공동으로 제기한 원청(한온시스템)의 교섭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 심문 회의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준비 초기엔 많은 자료가 부족했지만, 3개 지회가 똘똘 뭉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끝에 얻어 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원청교섭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 한온시스템 3개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의 피땀 어린 노동에 대해 원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청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임금과 복지의 차별을 줄이고 노동의 가치에 맞는 처우를 받고 싶습니다. 하청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으며, 위험한 환경과 과도한 작업량, 인력 부족을 개선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고, 원청이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3개 지회는 함께 원청교섭을 쟁취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진짜 시장은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교섭에 나서라

우리는 원청인 한온시스템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한온시스템은 더 이상 하청 업체 뒤에 머물지 말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우리의 요구를 듣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온시스템 3개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현장을 만드는 것."

이 목표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 한온시스템 3개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굳게 잡은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